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재구성과 부적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민경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Family Reconstruction and Maladaptation

Min-Kyeong Kim

Professor, Division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족재구성과 부적응 경험을 통해 구성해 낸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대상은 수도권과 충청 및 전라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8월에서 2019년 10월 까지 행해졌으며 자료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47개의 의미를 토대로 경험의 본질적 구조인 10개의 주제와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10개의 주제는 의도하지 않은 선택: 이주, 낯선 가족관계형성, 수용되지 못한 불만과 분노, 소속감의 부재와 불투명한 미래, 그리운 모국친구, 학습의 어려움, 한국문화 따라가기, 정체성혼란과 방황, 게임몰두와 비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에게 가족의 의미와 가족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추후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학습지원과 가족생활교육과 상담 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가족재구성, 부적응,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현상학적 연구, 질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ulticultural adolescents' family reconstruction and maladaptation. Six multicultural adolescents living in Seoul,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were selected for the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December, 2019. This research is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provided 10 themes on the essential structure of experience and 4 theme clusters. The final 10 themes were unintentional choice: immigration, unfamiliar family relationship forming, unacceptable dissatisfaction and anger, absence of belonging and promising, missing homeland, keeping close relationship with old friends, difficulty of learning, following Korea culture, identity crisis and wandering, difficulty in adaptation : addiction to games and misdemeanour.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announce importance of family meaning and adaptation in Korea society.

Key Words : family reconstruction, maladaptation, multicultural adolescents, phenomenological study, qualitative study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paper publish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Min-Kyeong Kim(mkm35@nsu.ac.kr)

Received September 1,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October 5,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2000년대 이후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와 입국하여 귀화를 신청한 청소년은 2010년 3,468명, 2011년 6,652명, 2012년 7,56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하면 실제 중도입국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1].

중도입국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국내로 이주한 부모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이다. 한국문화적응과정에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또래관계, 학교적응과도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2,3].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고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상담조기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과정은 다양한 문화적응의 과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4,5].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장벽과 체류신분이 불안정하여 공교육 체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제약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청소년기까지 성장하던 친밀한 관계, 본국의 문화와 단절되어 새로운 학교체제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6,7]. 또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혼란과 가족관계 내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8].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과정에서 가족경험은 이들의 적응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문화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신뢰할만한 어른의 존재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2,9,10]. 그러나 학업이 생애주기상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재혼, 경제적 이유로 의도치 않게 이주를 해야 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학업에 앞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가 어렵고 한국어의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 재혼가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이탈과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은 가정적으로 원부모의 이혼과 타국에서의 재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되는 심리적 고통과 이에 따른 이탈과 행동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11].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재구성 과 부적응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의미와 한국사회에서

의 미래를 대비하고 적응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재구성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선행연구고찰

그동안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개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과 지원방안[1,6], 학교생활적응[3], 진로[12], 문화적응[4,13]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일부 이들의 가족관계 및 가족갈등에 대한 접근이 일부 이루어졌다[2,9]. 실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약 70%정도가 18세 이상으로 재혼가족의 경우 자녀연령은 가족생활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은 가족구성원내에서 복잡한 역동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들이 오랜기간 떨어져 있었던 부모님과 다시 생활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함을 밝혔다[2,9].

반면 긍정적인 측면이 보고된 연구들도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라도 의붓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보살핌을 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혈연을 기반으로 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일상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적인 끈끈함을 형성할 수 있다[9].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입국초기 갈등을 보이지만 점차 부모를 이해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13]. 따라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재구성을 성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과 친모와의 관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이들 관계가 좋지 않을시 부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친밀한 가족관계증진에 대한 관심과 적응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의 선정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으로 6명을 선정하였으며 Table 1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난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된 경험을 한 대상이며, 한국사회에 친부모와 재결합한 다문화 청소년으로 가족

과의 재결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충청 및 전라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예비학교나 한국어교실에 다니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참여자가 다니고 있는 다문화 및 이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중도입국한 청소년으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여학생 4명, 남학생 2명 총 6명이며 연령은 15-18세에 분포되어있고 출신국가는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se	sex	age	nationality	Stay in Korea(m)	affiliation
1	F	16	China	24	preschool
2	M	17	China	18	preschool
3	F	16	China	12	language school
4	F	15	China	6	preschool
5	M	18	Kazakhstan	23	preschool
6	F	15	Mongolia	23	language school

3.2 자료수집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환원을 통해 이해하는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 방법을 이용하였다[14]. 자료 수집과정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재구성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요인을 확인하고 한국사회에서 이주와 가족재구성과 관련있는 표현을 위주로 경청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이주전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 생활경험은 어떠하였는가?, 이주전 또래관계, 가족관계는 어떠하였으며 한국의 부모와는 어떻게 소통하였는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이주후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 사회의 적응양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은 어떠한가? 등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재구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심층면담 후 녹취하였다. 자료의 포화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면담시간은 2시간-3시간이 소요되었다. 평균 2차례의 면담이 행해졌고, 심층면담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인 센터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녹취한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고 인쇄 후 자료 분석하였다.

3.3 자료분석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전체인식의 단계를 거쳐 의미단위를 구분하고 연구자의 자유변경법(Imaginative Variation)을 사용하여 적합한 단어로 전환하고 변형된 의미단어들을 구조로 통합한다. 일반적 구조의타당성을 계속 점검하였다.

3.4 엄격성 평가방법

본 연구의 평가방법은 적용성, 사실적 가치, 적용성, 중립성, 일관성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15]. 또다른 영역에서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와 2차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가족연구자, 질적 연구 전문가 각각 1인의 조인과 연구자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행지식의 주관성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개인내부 지향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해나가도록 하였다.

3.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를 위한 본 연구의 노력은 먼저 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준수하였다. 면접 전에 참여자와 부모의 연구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정보에 대해서도 연구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았다. 모든 참여자의 인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결과발표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었다.

4. 연구결과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재구성에 대한 주제와 주제목록은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Table 2. Family reconstruction and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pic	Cluster
Entering to Confusion	unintentional choice: immigration
	unfamiliar family relationship forming
	unacceptable dissatisfaction and anger

nostalgia for homeland	missing homeland
	keeping close relationship with old friends
continuing of learning	difficulty of learning
	following Korea culture
maladaptation	identity crisis and wandering
	absence of belonging and promising
	difficulty in adaptation : addiction to games and misdemeanour

4.1 제1 주제: 혼돈의 세계에 진입

4.1.1 의도하지 않은 선택: 이주

한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처음 접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언어, 문화는 거부감과 이질감을 더해주는 낯설음 그 자체였고, 이러한 상태는 그들이 진정 원하지 않았던 삶이며, 원하지 않았던 이주였음을 확고하게 생각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실감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었다. 사춘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중국말에 익숙하였고, 친구관계 등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익숙한 환경에서 낯선 나라로의 이주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여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어쩌다 보니 한국에 와있었어요. 난 중국에서 자라고 중국이 내 생활의 전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모든게 스태피어 명한 것 같아요. 공부든 뭐든 하고 싶지도 않고요(참여자 2)

4.1.2 낯선 가족관계형성

중국에서 입국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참여자의 환경은 부모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한 후에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였다. 부모의 한국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조부모와 생활하여 조기에 부모와 격리되었고, 이로 인해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는 서먹서먹한 타인과의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부모와 유년의 시절과 사춘기를 함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새로 형성된 가족은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사춘기에 그들만의 생활방식과 사고체계가 잡아가는 시기에 부모와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갈등을 낳기도 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녹록치 않은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재혼가정에서 본국 자녀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자녀를 이주시키게 되어 사춘기에 이른 중도입국 청소년은 낯선 사람을 새 아파로 부르며 낯선

가족에 적응해야 했다. 문화가 다른 한국사회로의 진입은 이주 자체만으로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모와의 관계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고통스러운 관계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거의 남과 다름었는데 엄마라고 의지해야 하고, 심지어 오랜만에 만나는 엄마의 관심은 어렵고 짜증이 난다고 할 수 있죠.(참여자 3)

처음 보는 남자를 아파라고 부르라고 하죠. 또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 동생보다 못한다고 구박을 받기도 하는 등 새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참여자 4)

4.1.3 수용되지 못한 분노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은 새롭게 이주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부모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 구조 안에서 불편함이 있었으며, 아직 학교에 소속되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실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그들이 환영받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내면의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여 출구가 막혀버린 듯한 상황에서 느끼는 잠재적 분노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들의 희망과 바램을 들어주고 안내해 주길 바라는 작은 욕망마저 수용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였다.

중국에서 왔는데 돈벌기 위해서 한국에 부모님이 먼저 오셨고, 그래서 중국에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엄마와 가까운 마음도 없고 이제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엄마에게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어요.(참여자 3)

심지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의 관심은 오히려 짜증나며 어려움, 처음 보는 남자를 아파라고 부르라고 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새 아파 눈치를 보고 조심하는 게 싫어요(참여자 5)

4.2 제2 주제모음: 모국의 향수

4.2.1 그리운 모국 친구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이주가 아닌, 부모의 상황에 의해 원하지 않는 한국으로의 삶이 시작되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모국으로 귀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

서의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은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면서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 본국 또래와의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그들이 본국 친구들과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았다. 어려운 한국생활에서 그들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고,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 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지금 옆에 친구 없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친구랑 연락해요. 계속 그리고 여기 중국아이 없는 것도 아니고.(참여자 6)

중국가야 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그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관계에 만족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친구 생일이면 이 친구 선물을 사서 보내줘요.(참여자1)

주변에 있는 중국사람끼리 친하게 지내요. 한국 친구들 사귀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한국 친구 사귀어도 차이가 있잖아요. 뭐랄까? 느낌이 다르고 공감미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좋고 편해요.(참여자 3)

4.3 제3 주제모음: 배움의 연속

4.3.1 한계가 있는 배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한글 뿐 아니라 수학 등 본국에서 배운 내용과 달라서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습득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언어적 표현 능력의 한계로 학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지로 한국에 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한국생활이 그들의 학습동기를 저해하는 매우 큰 요인이었다.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은 새로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국과 다른 한국 삶을 경험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들에게 온통 낯선 세계였으며, 의사소통능력의 부재로 인한 학습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금 열심히 한국어 배워요. 소설 책 좋아하는데..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거 잘 안되요.(참여자 2)

중도입국의 경우는 주로 학령이 이상이 되어 입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한국말 습득 문제가 주로 있지요.(참여자4)

4.3.2 한국문화 따라잡기

본국과 한국의 의식주 문화, 예절, 생활패턴 등이 다른 것에 대해 배우고 익히려고 한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미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성격과 가치관의 형성이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통해 친구나 사회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자라온 환경과 다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사고 돈쓰는 것이 어색하고 잘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어 스트레스 받았어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러가야 하고 밤에 늦게 자다보니 일어나기 힘들어요.(참여자 3)

한국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대학가려고 온 힘을 다해 학원가고 학교가고, 성적에 목매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못해요(참여자 5)

4.4 제4 주제모음: 부적응에 놓인 상태

4.4.1 정체성 혼란과 방황

이주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한국은 새롭고 신선할 수도 있는 꿈의 장일 수도 있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원함이 아닌 부모에 의해 강제된 이주, 그리고 낯선 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낯선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 한국 생활은 그 자체로서 고통일 수 있다. 거기에 매우 민감한 시기의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형성과 학습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 주체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 등은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어떠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과 정체성 혼란, 불안 등이 항존하고 있다.

어린 시절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아서 내일에 간섭하려하면 귀찮고 짜증이 나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기도 하고요.(참여자 1)

한국에서 살지만 한국말도 잘못하고 하니 난 중국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려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살았던 곳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참여자 6)

4.4.2 소속감과 장래보장의 부재

중도 입국한 다문화 청소년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

지고 있었다.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본국에서처럼 정규학교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안정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미래조차 담보할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선 내 자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빨리 늘지 않아요. 학교에 가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따라 갈 수 없어서 그만 두었어요.(참여자 1)

중국에서는 어른과 같은 나이였는데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로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요.(참여자 3)

4.4.3 게임 몰두와 비행

중도입국 청소년은 언어 소통 부재로 인하여 친구 사귀에 두려움을 가지며 초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하였다. 그들이 한국으로 이주후 초기 적응과정에서 문화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였으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고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교육에서 오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들의 한국 생활의 어려움은 혼자 있기를 원하는 상태나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하였고 이는 집에 머물면서 게임에 몰두하거나 비행으로 빠지게 하였다.

나와 같은 아이들은 대개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스마트 폰만 보고 있거나 게임에 빠져있어요. 대부분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들어 시간이 빨리 가요. 게임하거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요.(참여자 2)

술과 담배는 필수죠. 우리들 세계에서 술과 담배를 해야 친구라 할 수 있어요. 술 늦게 먹고 새벽3-4시에 집에 들어가면 엄만 난리시죠. 언제 정신차리냐고 (참여자 4)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재구성 과 부

적응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주로 인해 낯선 가족관계형성은 친부모를 만난 기쁨보다는 수용받지 못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기저에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과는 달리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새롭게 재구성된 가족에서 새롭게 만난 의붓한국인 아버지의 역할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모국에서의 가정해체 및 한국에 온 후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되는 경험을 통해 친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이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오랜시간 동안 분리로 인해 서먹함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이 정서적 지지를 하고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때 심리적 적응을 높여진다는 선행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9].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을 위해 결속력 및 응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및 상담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한국사회에 정착 후 여전히 모국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 의존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한계나 문화의 차이로 한국친구들과의 관계망에 제한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노력하여 대인관계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모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SNS를 통한 모국친구들과 가족이상의 관계의 질이 현재의 정서적 지지가 되고 있으나 미래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없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적 지원, 정서적 지원, 문화적응지원 등의 계획적이고 의도적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하겠다.

셋째, 현실적 한계로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학습과 한국사회 문화적응이다. 언어적 한계와 그동안의 학습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학업열을 따라가기 힘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시스템이나 한국사람들의 삶의 방식 등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생경한 한국사회에 불안감마저 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발달단계상 학습과 진로의 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기초적인 학력의 벽을 낮추는데 다양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의 학습동기를 높힐 수 있는 심리 학습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넷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은 정체성혼란과 불투명한 미래로 낮은 문화적응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낮선 사회에 익숙해지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의 주된 문제양상으로 게임이나 비행 등 일상생활의 부적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아직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모는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재구성된 가정에서 친밀한 가족관계 재정립 및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내 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외부자원을 통해 교육 및 가족상담 등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그동안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재구성에 어려움과 그 결과로 나타난 특성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태도와 행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실천적 개입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제한점으로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재구성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유의표집을 통한 연구참여자 대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후속연구로는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성공적인 가족재구성과 적응 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가별 중도입국 청소년 등에 대한 접근과 함께 다양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1] K. M. Yang & H. Y. Jo. (2012). The Exploratory Study of Psycho-Social Adjustment of Immigrant You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195-214.
- [2] S. J. Lee & H. J. Kim. (201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Family Experience of Immigrant Youth Who were Born and Raised in Their Native Countr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5), 205-235.
- [3] B. C. Lee & D. Y. Song.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4), 131-154.
- [4] S. H. Park & J. H. Yu. (2017).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99-510.
- [5] S. J. Kim & C. H. Hong. (2017).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 195-211.
- [6] Y. J. Park. (2016). Study of Issues and Alternativ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Multicultural Contents Research*, 21, 297-322.
- [7] K. M. Yang & H. Y. Jo. (2012). A Exploring Study on the Educational Situation and Career Expectation of Youth Migrants in Korea. *Journal of Youth Welfare*, 14(3), 141-168.
- [8] S. W. Park & H. J. Woo. (2013). *How Multicultural Youths Become Koreans: A Grounded Theory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Students*. Theory and Society, 2013 Fall/Winter, 211-304.
- [9] M. Y. Um. (2013).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Rejoin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2, 39-82.
- [10] J. B. Kim & S. H. Park. (2017). *A Study on School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e*. Multicultural Youth Panel Conference Resources, 3-26.
- [11] K. A. Tyler, L. B. Whitbeck, D. R. Hoyt & A. M. Cauce. (2001). Risk Factors for Sexual Victimization among Male and Female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3), 503-520.
- [12] M. K. Kim.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Out of Schoo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6), 249-258.
- [13] B. H. Nam & J. N. Kim. (2017). A Qualitative Study on the Acculturation Process of Ethnic Korean Adolescents from Uzbekistan. *Journal of Region & Culture*, 4(1), 63-90.
- [14] A. Giorgi. (1997). The Theory , Practice, and Evalu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 235-260.
- [15]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김민경(Min-Kyeo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정신건강, 청소년

· E-Mail : mkm35@nsu.ac.kr